세상 모든 것이 여래장묘진여성

〈如來藏妙眞如性〉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⑫ 묘한 진여의 성품

〈원문〉 "아난아,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性)인가 하면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깨끗한 눈으로 청명한 허공을 볼 때는 오직 맑은 허공뿐이어서 툭 트여 아무것도 없다가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눈을 부릅떠 있다 눈에 피로가 일어나면 곧 허공에 따로 어지러운 헛꽃(狂華)이 보이기도 하며, 다시 온갖 헛것이 있게 되나니, 색음(色陰)도 마땅히 이와 같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아난아, 이 헛꽃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눈에서 난 것도 아니니라. 만약 허공에서 나왔다면 이미 허공에서 나왔으니 갈 때는 허공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만약 출입이 있다면 허공이 아닐 것이요, 허공이 만약 비지 않았으면 스스로 헛꽃의 일어나고 없어짐을 용납하지 못하리니 아난의 몸에 아난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리라. 만약 눈에서 나왔다면 이미 눈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로 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헛꽃이 눈에서 나왔으므로 마땅히 보는 견(見)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견이 있다면 허공의 헛꽃이 되었으므로 돌아올 적에는 마땅히 눈을 보아야 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색음이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닌 성(性)이니라."

〈강해〉 〈능엄경〉 2권 말부터 3권에 들어가면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오음(五陰),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의 이른바 사과(四科)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견(見), 식(識)의 칠대(七大)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이라는 것을 밝힌다.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란 말이다. 일체 만물이 모두 여래장이라는 것은 여래장 사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두두가 비로요, 물물이 화장' 이라는 화엄대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오음부터 설명하면서 피로해진 눈에 헛꽃(狂華= 空華)이 보이는 것을 예로 들어 이 헛꽃이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눈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 하면서 결론은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말한다. 인연은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자연은 원인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원래 자연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외도들이 주장하는 명제(冥諦)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아난이 외도의 명제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제(冥諦)란 인도의 수론학파(數論學派)에서 내세운 것으로 근본 물질을 뜻하는 프라크리티(prakrti)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순수한 정신 인자(因子)인 푸루사(puusa)와 접촉하여 모든 현상계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 원리를 명제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무리 사유하여도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모른다는 뜻에서 명(冥)이라 한다. 용수의 〈중론(中論)〉에 "모든 법은 스스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며, 그 둘에서 함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생함이 없는 줄 알아야 한다." (諸法不自生 亦不從他生 不共不無因 是故知無生)는 송구가 설해져 있다. 이 송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경에서 비유로 든 허공꽃이 생겼을 경우 색음(色陰)이 이것저것 합해져 생긴 인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자연도 아니다. 말하자면 허공꽃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말인데, 이것을 여래장묘진여성이라 하여 이 성이 시방 법계를 감싸고 있으므로 사과(四科)에서 칠대(七大)까지가 모두 여래장인 묘한 진여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래장의 성(性)은 인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라는 말은 〈능엄경〉 특유의 논법이라 할 수 있다. 〈능엄경〉의 여래장은 불성(佛性)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통 근신(根身)인 유정 쪽에서만 중생이 모두 불성의 존재임을 강조해 오다가 기계(器界)인 천지 만물이 모두 불성이 내재된 여래장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심장과 오장의 주체 의식 깨어남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⑫ 주체 의식

심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나면 눈, 귀, 코, 입, 몸, 생각을 통해 경상이 드러난다. 눈으로는 색깔이 인식된다. 붉은색이다. 시야가 온통 붉은색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붉은색 빛을 인식할 수도 있다. 때론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붉은색 털을 가진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귀로는 소리가 인식된다. 벌레 소리, 종소리, 목탁 소리 등의 다양한 소리가 들려온다. 코로는 냄새가 맡아진다. 천상의 향기 같은 그윽한 꽃향기가 풍겨오기도 하고, 악취가 진동하기도 한다. 입으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이 튀어나온다. 몸으로는 초감각이 발현된다. 감각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도 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몸 상태와 일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생각으로는 다양한 현상들이 드러난다. 과거와 미래를 보기도 하고, 다른 세계와 교류하기도 한다.

심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나면 언제 어디서든 임의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능력을 쓰면서 아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심장의 주체 의식을 깨웠으면 그 다음에는 간이나 비장의 주체 의식을 깨운다. 일치시키는 방법은 똑같다. 다만 심장의 주체 의식이 도움을 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깨어난다. 때로는 오장의 주체 의식끼리 서로 부딪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따로 발현시켜서 서로 화합시켜야 한다. 이 또한 장부 순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정이다. 나머지 장부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 드러나는 안, 이, 비, 설, 신, 의의 경상은 색깔의 경상만 다를 뿐 대부분이 비슷하다.

비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는 황색이 인식된다. 간은 녹색이다. 폐는 백색이다. 신장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는 푸른색이다. 머리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는 다섯 가지 색깔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오장의 주체 의식 중 어떤 의식이 머리로 올라왔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색깔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 다섯 개의 주체의식이 함께 모이면 금색 빛이 인식된다. 보라색, 분홍색, 갈색 등의 색깔들은 서로 다른 주체 의식들끼리 만났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다.

육장(六臟)의 주체의식이 발현될 때는 여러 가지 경상이 나타난다. 어떤 때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나와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한다. 빨간 옷을 입었으니 이는 심장의 주체 의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의식이 들어와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 외부 의식을 물리쳐야 한다는 적대감을 갖게 된다. 적대감을 갖고 주체의식을 대하면 장부 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장부 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고 일반 사람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상은 6식과 7식의 경계가 무너져서 7식의 주체 의식이 깨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 정신분열이나 빙의 현상으로 오해한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오장의 주체 의식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처음 수행문에 들어선 사람이 이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혼자서 넘어서는 것은 힘들고 반드시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하다. 오장의 주체 의식 중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의식도 있고, 명석한 의식도 있다. 그런 경우에 거짓말에 속아서도 안 되고, 명석함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둘 다 제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때 쓰이는 것이 공관법(空觀法)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⑫ 집착 않는 법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자 없어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 버리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도 완전히 소유했다는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어, 또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면서 두려워한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럴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는 한, 헤매는 일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태어남은 이루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뜨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기 전에 바른 눈이 없는 사람들과 먼저 대면한다. 그러니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안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세상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느끼고 보이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각자가 만지는 부위의 느낌에 따라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에 짓눌리고 있는지, 그것을 벗어날 방도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욕망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종속되어 하나의 부품처럼 사용되다가,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찾아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하자. 이것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을 알려고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세상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자신이 세상이라는 새장에 갇혀있는 새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세상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빠져나간 사람을 찾아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세상을 바르게 본 적이 없기에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은 세상을 보고 듣는 데 많은 방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방해라고 알지 못하고 도움으로 생각하며 의지하고 있다. 이런 착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감각기관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만을 접하고 살아왔다. 그렇다고 가상세계라는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구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상세계라고 인지함으로써 마음에 생기는 장애를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가 생기지 않으면 잃는 것과 얻어지는 것으로 공부의 척도를 삼는 일은 차차 줄어든다. 그리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알아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알아야 하는 마음을 낸 것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니,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의 낙처(落處)를 바로 알면, 알아야 하는 그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임을 바로 알게 된다.

"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처럼 환상 같고 꿈 같아, 늘어진 머리카락이 뜨거워지면 휩싸이누나.

이렇게 삼유를 바라본다면 마침내 해탈을 얻으리라."

아무리 그림자 같은 것이라 들어도, 이 가르침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 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없기에 엉뚱한 방향에서 계속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수행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지만, 간절하게 이것에 대해 듣지 않고, 불필요한 바깥의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 갈 길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꿰뚫지 못하고 '나' 라는 것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 라는 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하고 미묘하여, 쉽게 이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기에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누구 망신?!

마이크와 2m 멀리서 작은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염불소리로 바꾸어 드리는 최신 디지털 마이크 소개 : 법당서 스님 마이크와 본사 마이크와 스님 자신이 염불을 해 볼시 추호라도 광고 내용이 과장이면 법당서 누구 망신....장난감 성능 차이를 확인

마이크는 보물 : 오직! 마이크만 바꿔도 수 천번의 염불이 내 귀에 신명으로 힐링되니 보물이 따로 없다.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소리비교비용은 커피 한잔!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수 천만원까지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7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 방문 시설가격
₩ 68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현장 방문 시설가격
₩ 80만원